

충성대신보

제 193호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육군3사관학교 제 57기 졸업 및 임관식



- | | | | |
|---------|---------------------|---------|---------------|
| 02 학교소식 | 제5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 08 생도광장 | 기초군사훈련 59기 소감 |
| 04 학교소식 | 제59기 사관생도입학식 | 11 오피니언 | 사회 저명인사 칼럼 |
| 05 학교소식 | 학교입시홍보카카오채널 및 챗봇 개설 |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
| 06 생도광장 | 생도대대나무숲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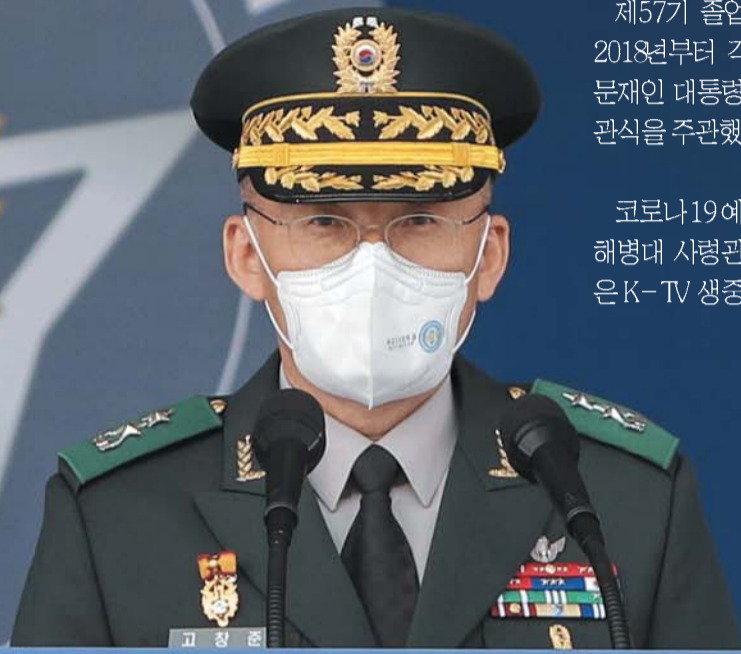


가슴에 큰 꿈을!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이 2월 28일 학교 충성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장교 합동 임관식이 2018년부터 각 군 사관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변경된 이래 매년 사관학교 한 곳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육사(18), 해사(19), 공사(20), 간사교(21)에 이어 올하는 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주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美 8군사령관 등 군 주요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K-TV 생중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시청했다.

477명(여성 49명)의 신입장교들은 지난 2년 동안 '가슴에 큰 꿈을, 조국에 충성을' 다짐하며, 미래 첨단과학 육군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날 호국간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행사는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졸업 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축사, ▲임관장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가슴에 큰 꿈을! 조국에 충성을!

임관 선서



졸업성적 우수자



대통령
김재현(27세)

- 출신고교: 화정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병사로 군에 복무하면서 군이라는 조직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정예장교가 되고자 지원



국무총리
김현성(26세)

- 출신고교: 창신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평소 삶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군 복무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을 동경해 지원



국방부장관
허성오(25세)

- 출신고교: 김해고
- 병과: 포병
- 지원동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직업을 꿈꿨고 명예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장교의 길을 동경해 지원



합참의장
나충명(24세)

- 출신고교: 서울 예일여고
- 병과: 의정
- 지원동기
어릴적부터 독립의사들의 헌신과 정의로운 삶에 감명받아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



연합사령관
김보선(26세)

- 출신고교: 도원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군 복무 시절 GP장이었던 3사출신 소대장의 숭선수범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



육군참모총장
송승훈(28세)

- 출신고교: 인성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병사와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군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 신분을 동경해 지원



해군참모총장
박장근(25세)

- 출신고교: 포천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존경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군인의 멋과 가치를 알게 되어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기위해 지원



공군참모총장
인영진(24세)

- 출신고교: 논산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올 수 없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지원



학교장
이경민(24세)

- 출신고교: 덕이고
- 병과: 보병
- 지원동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동경하였고 부하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예장교가 되고자 지원



문재인대통령 계급장수여

조국에 충성을!

미래 첨단과학 육군의 주역, 대통령상 소위 김재현 등 477명의 정예장교 탄생

대통령상은 김재현(27세, 男) 소위, 국무총리상은 김현성(25세, 男)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허성오(25세, 男) 소위, 합참의장상은 나종명(24세, 女) 소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재현 소위는 육군 용사로 군 복무 중 부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의 모습을 보고 장교의 길을 걷고자 사관학교에 진학했다.

노혁준 소위(26세, 男)는 2012년 오스트리아 동계 유스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동메달을 수상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단국대 체육교육과에서 체육 교사를 꿈꾸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3사 55기로 임관한 누나의 권유로 장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경미(28세, 女) 소위의 집안은 광복군과 6.25 참전용사를 배출한 병역 명문가다.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종조부 이용득 선생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부 이봉조 선생, 3사 18기로 임관해 소령으로 예편한 백부와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가족을 이어간다.

김효수(24세, 男) 소위는 4형제 모두가 장교로 군 복무하게 된다. 첫째 형은 간부사관 33기, 둘째 형은 학군 53기, 셋째 형은 3사 53기로 임관하였으며, 막내인 김 소위가 이번에 임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K-9 자주포, 30mm 복합대공화기, 현무II·III, 무인수색차량, 소형무장 헬기, 다목적 무인차량 등 육군의 대표 무기체계를 전시하여 미래 첨단육군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장교들은 병과 신임장교 지휘 참모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부대에 배치되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위 박 광 선

임관 장교
분열



이색경력 보유자



6·25참전
용사 후손
이경미(28세)

- 출신학교: 상주여자고
- 병과: 정보
- 특이사항
종조부: 임시정부광복군활동
조부: 6.25참전용사
어머니: 육군(예)부사관
동생: 3사56기 중위(진)



최다 자격증
취득자
황찬희(24세)

- 출신학교: 거제육포고
- 병과: 보병
- 특이사항
자격증 14개 취득
정보처리기사,
CS리더스관리사,
ITQ, 문서실무사,
응급처치사, 한자 3급,
위드, 특공무술 태권도등



글로벌
리더십 기대
신동철(25세)

- 출신학교: 페이트 헤리티지
(Faith Heritage School)
- 병과: 병참
- 특이사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
캠퍼스(경영학) 2학년 수료
꽃고등학교교육학사절 성적우수,
트럼프상수상
토익990점, 토익스피킹 레벨7



국가대표
선수출신
노혁준(26세)

- 출신학교: 판곡고
- 병과: 보병
- 특이사항
스피드스케이팅 청소년 국가
대표 중학교(2학년)부터 대학
교(1학년)까지 스피드스케이
팅 상비군 활동 단국대 체육
교육과, 중등정교사(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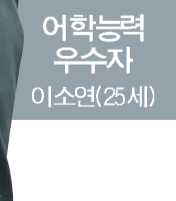
군번 3개
보유자
김도윤(28세)

- 출신학교: 영동고
- 병과: 군사경찰
- 특이사항
7군단 통신대대 통신병(병장)
7군단 강습대대 분대장(하사)
1사단 소대장(소위)



무도고단자
김수민(24세)

- 출신학교: 충남고
- 병과: 보병
- 특이사항
총무도9단
태권도3단, 특공무술3단,
유도1단, 합기도1단,
크라브마카레벨1



어학능력
우수자
이소연(25세)

- 출신학교: 동두천외국어고
- 병과: 정보
- 특이사항
일본어능력시험(JLPT)레벨N2
외국어말하기평가 AL 등급 토익 990점,
토익스피킹 레벨7, 리츠메이칸아시아
태평양대학교(국제관계학) 2학년 수료

4형제 육군
장교로 복무
김효수(24세)



- 출신학교: 백암고
- 병과: 정보
- 특이사항
아버지: 육군(예)부사관
첫째: 간부사관 33기 대위
둘째: 학군 53기 예)중위
셋째: 3사 53기 대위



“59기 사관생도 입학식”



59기 사관생도 532명(여생도 55명 포함)이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끝내고 24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육군3사관학교

학교장(소장 고창준) 축사

충성기초훈련은 군인 기본자세와 내적 가치를 함양하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식, 사격, 화생방 등 기본 전투기술을 이해하여 사관생도로서 기본소양을 갖추는 훈련이다.

1월 13일에 입교한 59기 생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1,2차 PCR검사를 받고 2주간 예방적 격리 후 본격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예방적 격리 기간에 생도들은 화상 시스템(Webex)을 통해 학교 역사와 더불어 생도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1월 21일 가입학식을 시작으로 사관생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군인 기본자세 체득 및 집중인성교육과 필수 전투기술 숙달을 위한 제식, 개인화기, 구급법, 화생방 등을 실시했다.

입학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초청 인원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생도들의 부모님을 위해 국방홍보원(국방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사 모습을 생중계하였다. 학교 전 장병과 군무원, 선배 사관생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입학 신고 및 선서, 학년장 수여, 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열이 시작되자 입교 전의 모습과 달리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59기 사관생도들의 모습에 학교 장병과 선배 사관생도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힘찬 박수로 격려했다. 이날 학교장(소장 고창준)은 축사를 통해 “국방 인재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늘 가슴에 품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예장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관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군사학과 일반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사관생도로서 패기와 열정, 그리고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정예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이날 4학년으로 진학하는 58기 생도 487명(여생도 49명 포함)도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주무관 길진규**



주요 직위자, 기수단, 어단본부 생도 단체 기념 촬영



57기 졸업상, 58기 성적 우수자, 59기 충성기초훈련 우수자 상장수여식

59기 사관생도 이색경력 보유자

서동영(22세, 01년생)

미국 캔자스주립대(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2년간 수학하면서 주변 미국 친구들이 모병제임에도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고자 입교하였다. 서동영 생도를 포함하여 해외 유학 중입교한 생도는 총 6명이 있다.

남택현(24세, 99년생)

현재 58기로 재학 중인 동생 남택범 생도의 뒤를 이어 후배 기수로 입학해 형제가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인주연(22세, 01년생)

졸업한 56기 안성인 생도의 여동생으로 남매가 학교에서 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현민(22세, 01년생)

할아버지는 3사9기로, 아버지는 3사31기로 입관해 3대가 학교를 통해 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美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꿈꿨지만, 시민권이 없어 하와이커뮤니티칼리지(Hawaii Community College)에 진학했다가 장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박성준(24세, 99년생)

하사로 복무 중 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장교가 되고 싶어 학교에 입교하였다. 특히, 부사관 복무 중 국방 관련 전문학사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입학자격을 갖춘 사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59기 532명, 충성기초훈련 마치고 2년간 정예장교 되기 위한 담금질 시작!



육군 장병 헬스 뽀뽀 콘테스트 상금, 영천시 기부

보디빌딩 대회에 입상한 구주현 소령 등 11명 상금 100만원 기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동참

체육학처 구주현 소령 등 11명의 장병이 지난 1월 10일, 육군본부 주관 보디빌딩 대회 '헬스 뽀뽀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상금 100만 원을 영천시에 기부했다.

구주현 소령 등 11명 장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통제된 병영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자 '제2회 육군 헬스 뽀뽀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2등으로 입상한 상금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어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영천시에 기부하게 되었다.

당일 영천시청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구주현 소령은 "대회를 준비하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동안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한 팀원들이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주변 이웃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기부한 상금 100만 원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전달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위 박광선



학교 장병들이 상금 100만 원을 최가문 영천시청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이버홍보팀장(왕영민 소령(진))이 챗봇 '카이'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



학교 입시홍보카카오톡 채널 및 챗봇 메인화면

학교 입시홍보 카카오톡 채널 및 챗봇 개설

학교정보, 입시자료, 자주묻는 질문 등 24시간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학교는 지난 1월 4일부터 입시 홍보자료와 학교 관련 궁금증을 모바일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과 챗봇 서비스를 개설했다. 그동안 입시 관련 궁금증은 상담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 입시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상담 전화는 야간·휴일 등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입시상담 게시판을 답변을 기다리는 불편함과 답변 확인을 위해 게시글을 직접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Z세대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의 카카오톡 채널과 챗봇을 이용해 수험생들과 24시간 연중무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입시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단순·반복질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Korea Army Academy at Youngcheon) 개설을 준비한 육군3사관학교 사이버홍보팀장(왕영민 소령(진))은 학교 입시 정보와 축적된 예상 질문으로 챗봇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학교 교직원 및 생도를 대상으로 150일간 시범 운영하여 사용자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의 응답 정확도를 향상, 지난 1월 3일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우수생도 선발을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적극적인 사이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전반기에는 메타버스 서비스 이플랜드('ifland')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21년 8월부터 카카오톡 채널과 챗봇 '카이(KAAY) : 대위 박광선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군교류 협약 체결

주무관 김민수



경북전문대학교(1. 10)



동강대학교(1. 20)

1, 2월 학교 간부 전·출입 및 전역·퇴직자 명단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생도대 군사훈련처장 대령 손은석
- 생도대 3훈육장교 대위 이강준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소령(진)이현직
-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교수 대위 김영기
- 교수부 사회학처 법정학교수대위 송병근
- 교수부 이학처 국방시스템과학교수 대위 김영민
- 교수부 공학처 건설공학교수 대위 심규영
- 교수부 인문학처 심리학교수 대위 인동현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투기술학교관 나군 주상열
- 생도대 체육학처 전투체력교관대군 김미봉
- 생도대 체육학처 배트민턴교관대군 이상원
- 교수부 인문학처 영어학교수 기군 박향숙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중차량정비담당 9급 김재영
- 근무지원단 병원 보건간호담당 대군 이해영
- 근무지원단 병원 응급구조담당 대군 김정률
- 근무지원단 병원 간호담당 대군 인상희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행정부 지원처 인사근무과장 중령 김기원 → 2작사
- 생도대 생도여단장 대령 사인우 → 2작사
- 생도대 2훈육장교 대위 박보람 → 국방대학교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소령(진) 김창준 → 방사청
-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교수 대위 김경민 → 학군교
- 교수부 이학처 국방시스템과학교수 대위 이영훈 → 정보사
- 교수부 이학처 화학환경과학교수 대위 김정운 → 학군교
- 교수부 이학처 컴퓨터과학교수 대위 최원지 → 학군교

전역 퇴직 영광스러운 전역·퇴직을 축하드립니다 ♥

-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교수 소령 정이훈
- 생도대 기군 김경보(상담교관)
- 근무지원단 정보통신근무대 전산과장 6급 서영웅



생도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아직은 아니야

학교는 규정에 의거하여 주말에 외출 및 외박을 시행하고 있다. 3학년 1학기는 군인화 기간으로 출타 미 실시, 3학년 2학기는 월 6일, 4학년 1학기 및 2학기는 자율시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출 외박이 제한되고 정기휴가만 기다리고 있는 생도들. 57기 선배 생도들은 주말 외출, 외박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졸업과 임관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뒤에 4학년 진학을 앞둔 58기 생도들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A: "우리 생각해 보면 아직 손해는 아닌 것 같아"

B: "뭐가?"

A: "생각해봐. 1학기에는 외출, 외박이 없고 2학기는 월 6일이지? 하지만 우리는 57기 선배 생도들이 3학년 때 못 다녀온 홍보출장도 다녀왔고, 하계 정기휴가를 기존보다 1주일 더 보냈잖아!"

B: "그렇지! 그래서 뭐가 손해가 아닌데?"

A: "지금이라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외출, 외박이 풀리면 우리는 57기 선배 생도들보다 휴가도 많이 가고, 출타도 풀리면 이득이야 이득!"

그렇다. 58기 생도들은 희망에 가득 찬 앞날을 꿈꾸며 외출, 외박이 풀리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코로나 사태는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초군사훈련 인성교육 소감문



59기 사관생도 이도담

학교의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미로찾기와 금전등록기 토의 활동이었다.

2가지 프로그램에서 느낀 것은 '경청'의 중요성이다. 미로찾기는 눈을 감고 동기가 말해주는 대로 길을 찾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기의 말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생각하던 길과 달라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믿고 따라간 결과 도착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의심이 들었을 때 동기의 인도에 따르지 않거나 눈을 떴다면 이 활동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금전등록기 이야기 토의 때는 내가 쓴 답이 다 옳다고 생각이 들어 나의 답을 토대로 동기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답들을 수정했고 11개 중 10개를 맞추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상담관님께서 조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생도 생활을 하며 나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수용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교육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해주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러닝화, 보급과 싸제의 차이

체력단련과 개인적인 땀걸음을 많이 하는 사관학교 특성상, 러닝화는 필수용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급으로 나이키 러닝화를 받는다. 하지만 보급 러닝화가 불편하거나 개인의 취향 차이로 인해 싸제 러닝화를 많이 신다. A생도는 앞으로 땀걸음을 많이 하고자 매달 받는 품위 유지비를 조금씩 모아 아주 이쁜 러닝화를 샀다. 새로 산 신발을 받고 기분 좋게 신고 땀걸음을 하려던 찰나. 뒤에서 한 선배 생도가 A생도를 부른다.

“생도 이 신발 누가 신어도 된다고 했지? 보급 나이키 러닝화를 신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당황한 A생도는 선배 생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다.

“생도 몇 중대야? 중대명예위원생도가 누구지?” A생도는 큰일났다고 생각하여 얼른 대답했다.

“OOO 선배생도이십니다!” 그러자 선배 생도는 “알겠다, 분대장한테 보고해”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다. “에 알겠습니다! 충성!” A생도는 멀어져가는 선배 생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경례를 했다. 근데 잠깐, 선배생도님은 왜 아다다스 러닝화를 신고 있나요..?

내로남불, 과연 우리는?

생도대에서 불합리한 사례, 건의사항을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주제는 바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즉,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하면서 후배 생도에게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1년간 58기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하계 및 동계 군사학기를 지내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 58기들이 억울해했던 내로남불, 57기 선배 생도들이 하는 행정예규상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던 58기 생도들은 어디 갔을까? 우리가 과연 내로남불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올바른 생도 생활을 하였는가? 나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느꼈다. 이제 4학년 선배 생도가 되는 58기 생도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는 정예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이곳 육군3사관학교에 모였다. 사관생도 행정예규 속 제2장 책임과 의무 1절 책무에 따르면, “정예장교 양성과정에 있는 사관생도는 높은 명예심과 품위 유지, 절제력 배양이라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많은 통제와 학업의 스트레스, 빠듯한 시간계획과 체력적인 한계를 몸소 느끼며 생도 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생활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생도들은 이 생활을 이겨내기 보단 힘들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것이 맞는 행동일까? 졸업해서 임관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과연 그들은 생도 생활조차 힘겨워하면서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기초군사훈련 인성교육 소감문



59기 사관생도 이수영

너무 행복했다. 단점과 더불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처음엔 교육이라고 가질 수 있었다. 미로 그리기를 하면서 조원 해서 ‘어떻게 잠을 들을 믿고 의지하는 미로체험도 해보고, 풍 썰 수 있을까’라는 선 터뜨리기를 통해 생각없이 웃는 시간도 생겼다고 교육을 들 가졌다.

하지만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개인이 하는 활동이 아닌 조원끼리 동글게 앉으라는 교관님의 말씀에서 1차로, 그리고 과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에 2차로 심쿵했다.

평소에는 쉽게 그리지 못하는 그림도 그리면서 우리 조원들과 함께 구호도 만들고, 조 이리도 정하면서 한층 더 동기가 끈끈해졌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의 장점,

특히, 금전등록기 교육에서 우리 조원이 제일 많이 점수를 받아 토너먼트에서 올라가게 되었고, 춤, 노래 대결에서도 이겨 스타벅스 커피를 따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교육이었지만 마냥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닌, 그 속에서 나에게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추후 내가 장교가 되었을 때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재밌고 기억에 남는 교육을 진행 해주신 교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통신대기

작년 이맘때쯤 이제 막 총용관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난다. 새로 받는 보급품들도 많고, 전파 사항도 매우 많아서 바쁘던 그 시절 말이다. 총용관의 모든 생활관에는 스피커가 있어서 방송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전파 사항을 방송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 휴대폰의 카키오탁을 이용하여 전파 및 통제, 소통까지 하고 있다. 카키오탁 방은 각 중대별, 소대별, 분대별, 중대 내 기수별, 투표를 위한 채팅방, 각 일반학과 등 그 가짓수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이 카키오탁을 통한 전파와 통제는 정말 옳은 것일까? 카키오탁 투표 방을 통해 수요조사 등이 올라오면 일정한 시간을 주고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앞으로 아전에 나가면 용사들을 통제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휴대폰 카키오탁으로 투표하라고 통제를 내릴 것인가? 더군다나 용사들은 휴대폰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휴대폰 없이 통제 및 전파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꿀 빠는 기수

항상 선배 기수들은 후배 기수들에게 “나 때는 말아야”라는 말과 함께 너희들은 꿀 빠는 기수라고 한다. 58기는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인해 많은 훈련이 취소되어 내부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양봉 58기로도 불렸다. 후배 생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몇몇 58기 생도들은 59기 생도들에 대해 꿀 빠는 기수라고 얘기하는데..

- A: “59기는 얼차려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데? 금지했대!”
- B: “설 연휴에 분대장 생도를 통해서 PX 과자도 먹었대!”
- C: “진짜 꿀이다 꿀. 나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꿀 빨 수가 있지?”

이후, 59기들 왈 “선배 생도님들은 기초군사훈련 때 왜 각개전투 훈련 안 받으셨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59기들에게 꿀 빠는 기수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기초군사훈련 인성교육 소감문



59기 사관생도 이준호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우리 사관생도들은 차후 야전에 나가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소대원을 통솔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대원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나를 믿어봐’라는 미로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 능력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활동을 한다. 눈을 감고 미로찾기를 했을 때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실제 상황이라면 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신체 능력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그리고 금전등록기 토의를 통해서 평소 내가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언어와 소통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먼저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한 행실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행동의 목표를 세우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상기시킨 후에 프로그램에 임했다.

이번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신체 능력의 고마움과 소통, 언어에 대한 중요성, 그로써 받을 수 있는 갈등관리 능력,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까지. 사관생도로서 자질을 기르는 시간이었기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



59기 기초군사훈련 소감 1 58기 국장생도 김수현

59기가 입교했다. 불어오는 영천의 칼바람과 생활관으로 들려오는 힘찬 구령이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58기가 선배 생도가 된다고 생각하니 1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 오랜만에 찾아본 사진 속에는 1년 전 우리의 모습이 담겨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그때의 추억에 잠겨본다. 비슷한 감정들을 겪고 있을 후배 생도들이 참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59기 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때의 감정은 어땠을까?

기훈1중대 59기 김경범 촘촘하게 계획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엄격한 규율들.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내 동기들과 짧은 전화 한 통이지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부모님, 그리고 예복을 입고 사열해있는 선배 생도님들의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줍니다. 화장실에 붙어있던 '인내하라,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라는 문구처럼 하루하루 견디고 발전해 나간다면 그토록 바라던 임관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기훈1중대 59기 김영찬 이곳에서 처음 보게 된 문구는 '우리는 대한민국 1% 사관생도다'였습니다. 그 문구는 마치 2월 18일 입학식을 연상케 했고 저의 감정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관생도라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은 첫 순간을 잊지 않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겠다는 열정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들어닥쳐도 꺾이지 않는 불변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기훈1중대 59기 김철우 '노력을 들이마시고 보람을 내뿜는다' 이 한마디로 충성기초훈련을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회에서의 습관이 점차 열려져 없어지고 사관생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충성대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당당해지자 '그리고 명예로워지자 내일을 준비하는 육군3사관학교가 나를 빼놓지 않도록,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59기를 빼놓지 않도록.'

기훈1중대 59기 김강산 경험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정신력, 리더십, 군사적 지식, 생활관에서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각종 교육과 내적 가치 토의에서는 인격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앞으로 펼쳐질 생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련과 각자의 힘듦이 있었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짧다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지만 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기훈2중대 59기 백규현 절제된 생활과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도와준 59기 동기들과 훈육관님들, 훌륭한 선배 지도 생도님이 있었기에 무사히 기훈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훈 아버지인 58기 주승원 생도님께 항상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훈2중대 59기 류제범 힘들고 어려운 충성기초훈련이었지만 훌륭한 선배 지도생도님과 훈육관님들의 교육과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 동기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저를 지도해주신 58기 주승원 생도님 감사드립니다.

기훈2중대 59기 백규현 삼계탕처럼 뜨겁고 빙수처럼 차가웠던 5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훈3중대 59기 황지유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몸도 많이 써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학 기초지식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기훈4중대 59기 유동열 선배님들이 이미 거쳐 갔을 이 길, 영천의 아침을 깨우는 우리, 육군3사관학교 59기 생도들이 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우리 59기는 조금 더 사관생도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7기 선배님들의 임관식을 위해 충성대의 별을 만들었던 것처럼, 2년 뒤 59기 모두가 충성대의 별을 볼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두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9기 파이팅!

기훈4중대 59기 오은민 경험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정신력, 리더십, 군사적 지식, 생활관에서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각종 교육과 내적 가치 토의에서는 인격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앞으로 펼쳐질 생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련과 각자의 힘듦이 있었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짧다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지만 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59기 생도들의 충성기초훈련 소감을 보며 설레던 그때의 감정과 전율을 또 한 번 느꼈고, 명예로운 사관생도가 되고자 기뻐했던 첫 마음기쁨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반짝거리는 초심 위로 쌓여간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후배 생도들이 기대하는 선배 생도의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다.



59기 기초군사훈련 소감 2



기훈지도생도 58기 김관우

2021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2022년의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2021년은 내게 어느 때보다 의미 있던 해였다. 작년 1월, 나는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집을 떠나 충성대로 향했다. 그때 처음 본 지도생도들의 모습은 늠름하고 멋있었으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기는 느낌이었다. 선배들을 보며 21년 충성기초훈련을 잘 수료할 수 있었던 나는 그 모습에 감명받아 22년 충성기초훈련의 지도생도가 되었고, 더 멋진 후배들을 양성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59기들을 접했던 날, 후배들의 첫인상은 작년 21년 충성기초훈련 때 우리 58기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다. 아직 사회의 때를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어리숙한 모습, 새로운 환경에

59기 새끼 호랑이들을 환영하며

서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 2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를 진행했고 이 기간에도 후배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 힘썼다. 격리가 끝난 후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제식 교육을 진행할 때 사회에서 배워 온 서투른 제식 동작들을 보며 귀엽게만 느껴

졌다. 하지만 날을 거듭할수록 습득력과 학습력이 매우 빠른 것인지 많은 것을 습득하려고 노력했고, 관물방법, 군가, 국군도수체조, 훈련 등을 진행하며 후배들에게서 점차 사관생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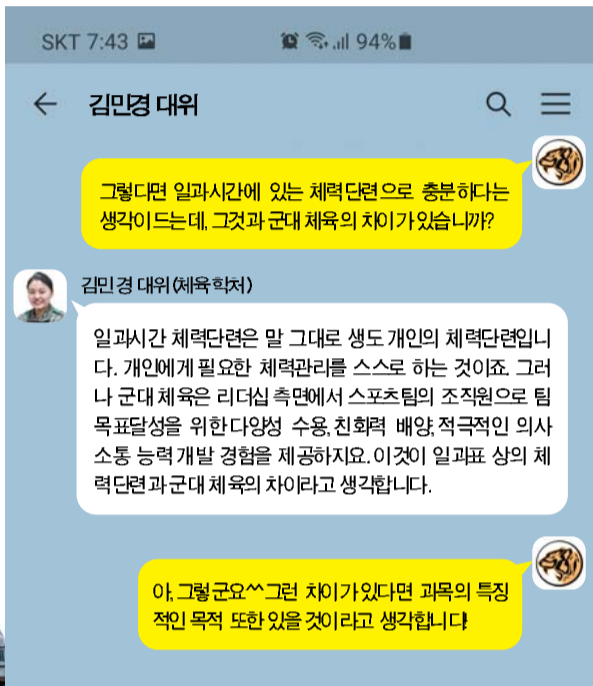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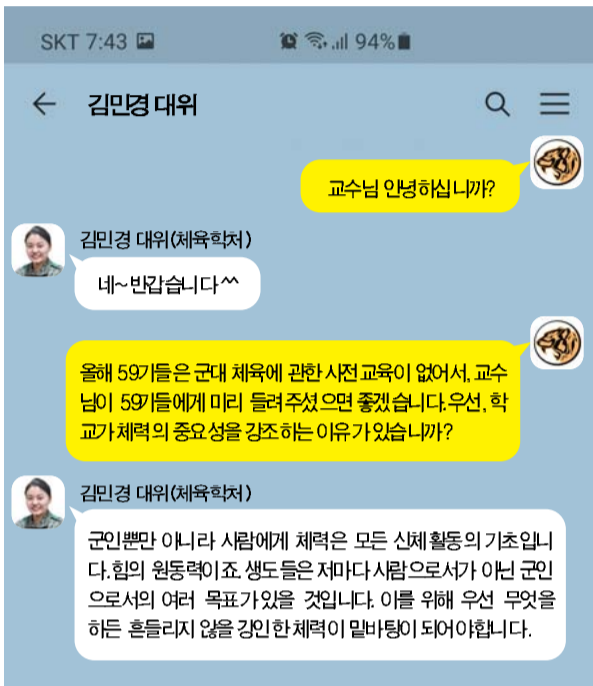
59기 생도들은 사회에서 배웠던 습관들을 벗어 던지고 사관생도로 환골탈태했으며,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도생도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 출발선에 서기 위한 몸풀기를 마쳤다. 출발선에 선 59기 생도들에게 명확한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힘들 때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생도가 되기 위해 1년간 곁에 머물 것이며 정진해 나갈 것이다.

군대 체육은 어떤 과목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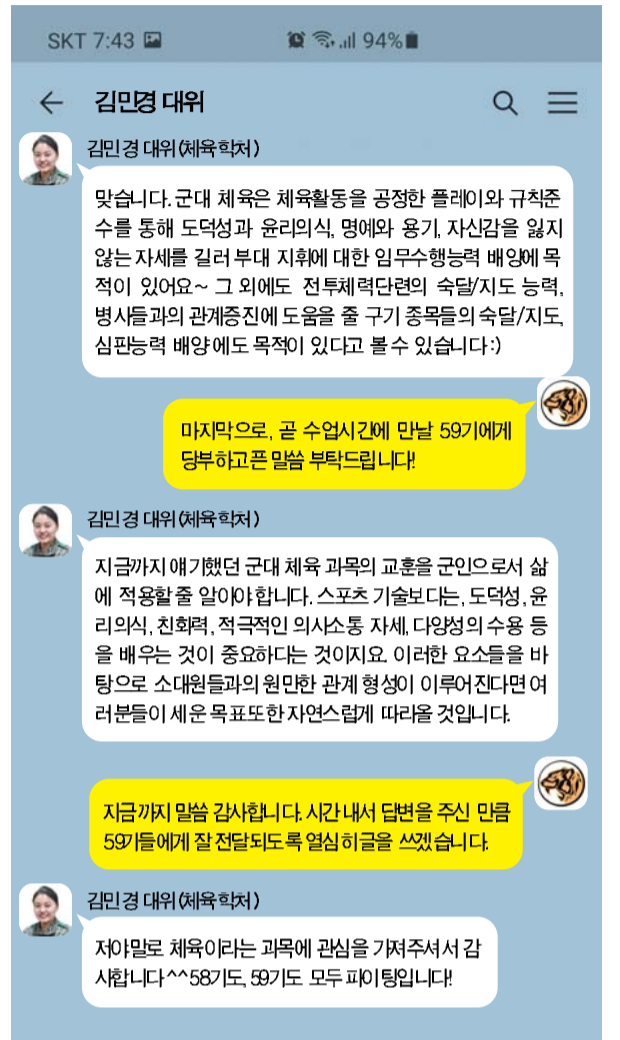


현재까지 훈련, 교육, 수강 신청 등 비쁘게 달려온 59기들의 일정 속에는 그들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있었다. 그 와중에 우리는 59기 일반학의 한 부분인 군대 체육에 관한 사전교육은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58기는 59기들에게 군대 체육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전달하고자 체육학처 교수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58기 기자생도 원동규



59기들을 위한 체육학처 교수님과의 대화



58기 기초군사훈련 생도로 입교하여 걸음마를 땀 2021년 나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인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 외박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었다. 나는 처음 입교 당시 100킬로가 넘는 거구였다. 그런 내가 군인이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꾸준한 심신단련으로 인해 지금은 과거의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외형적인 나의 모습과 더불어, 내적인 부분도 새로 형성되었다. 선배, 동기들과 동고

동락하는 일상은 서로 배려하는 방법,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으며, 군사학기에는 훈련을 통한 전우와의 끈끈한 동기에, 일반학기에는 사화에 열중하며 견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기르며 나의 존재가치를 만들어갔다.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남은 1년의 미래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

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남은 1년 동안 나는 나만의 존재가치를 또 만들어 나갈 것이며, 오랫동안 장교의 꿈을 그려가며 생각하는 장교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1년의 생도 생활을 마무리하며

57기 선배 생도들은 떠났고, 59기 후배 생도들은 다시 들어왔다. 우리 58기도 1년 후에는 임관하여 아전으로 나갈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며 개개인의 살아 가는 모습도,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다르지만, 모든 구성원이 야전에 나갈 때 처음 초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했던 젊은 추억의 시간을 떠올리며 정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기를 희망한다.



충성대에 다시금 불어오는 칼바람과 10동 막사에서 들리는 우렁찬 합성을 듣고 있으면, 분득 나의 기혼생도 시절이 떠오르면서 지난 1년간의 소중한 기억들을 회상하게 된다.

때 추천받은 신문사는 나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던 선택이었지만, 새로움과 궁금증으로 호기심을 유발했다. 평소 소에 생각을 정리해 말하는 것,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며 흥미를 느꼈던 나는 내 생각과 정보를 글로써 알

해할 수 있는 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부서의 장점과 홍보를 생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었다. 무수히 많은 반박과 수정을 통해 써 내려간 글이 신문에 실렸을 때의 짜릿함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훌륭한 교수님, 주무관님, 57기 선배 생도님의 지도로 나만의 글을 쓰며 정서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년간의 기자생도 생활 마침표

지난 1년은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목표를 하나씩 정하고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써 얻어진 자신감은 다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켰고, 충성대 신문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혼생도 시절, 분체부를 고민하고 있을

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전을 하게 되었다. 처음 내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타문화체육부서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생도들이 궁금

2022년에도 신문을 읽는 생도들에게 생도대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주고 생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자생도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신문에 대한 생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바라며, 남은 1년도 두려움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생도들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 I

사관과 사관생도

국가안보의 최종적 보루로 합법적인 무력 수단을 보유한 군대는 전통적으로 그 수단의 절차적 통제를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해 왔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대는 일반 사회의 그 어떤 조직보다 엄격한 계층과 계급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계급은 국가의 군대 규모와 군사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군대의 계층만큼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시 임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사관(士官, officer), 준사관(準士官, warrant officer), 부사관(副士官, non-commissioned officer), 병(兵, soldier)의 4가지 계층으로 구분한다.

중령 황수현
인문학처
군사사학과 교수



통상 군대의 최상위 계층으로 장교라 불리는 사관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로 장기 활용을 위한 소수의 정예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사관으로 임관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비교적 단기 활용 위주의 대규모 초급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관으로 임관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전문분야의 경우 예외적인 소규모 사관 임관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조직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조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는 리더십이다. 항상 전쟁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군대에 있어서도 군대의 다양한 제대를 책임지는 지휘관 또는 부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군의 미래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특전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관학교에서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교육받는 소수의 인원들에 대해서만 사관생도(士官生徒 cadet)라고 호칭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 외 대부분의 사관 예비자들은 사관 후보생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만큼 사관생도라는 명칭 자체에는 국가의 미래 안보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라는 송고한 가치가 붙어있다.

충성대의 자랑이자 보물인 우리 사관생도들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육군의 정예장교로서, 국가의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왔다. 그들은 사관으로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고도의 냉철한 지성과 다양한 제대의 리더로서 부하들을 지휘통솔하기 위한 전장 리더십, 그리고 어떠한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용맹과 체력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연마해 왔다. 우리 사관생도는 미완성인 원석 상태로 입학하여 교육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항상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이제 다이아몬드로 단단하게 연마된 그들이 출시표를 던질 때가 왔다. 2년 동안 충성대라는 울타리 속에서 진정한 사관이 되기 위해 기량을 연마해 온 477명의 백린 57기 사관생도들은 드디어 사관생도에서 생도라는 꼬리표를 떼고 온전한 사관으로 우뚝 설 때가 된 것이다. 앞으로 백린 57기 사관생도들에게 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펼쳐질 환경은 사관생도 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군의 리더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모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바이흐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하지만 2년간의 고된 수행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우리 사관생도들은 사관으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충성대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며, 사관생도에서 사관으로 거듭날 백린 57기의 무운장구를 기원한다.

칼럼 II

전장에서의 방탄공학(防彈工學)

방탄공학은 각종 탄의 관통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학문을 뜻한다. 방탄공학이 학문적인 의미로 연구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지만, 고대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가죽 갑옷, 로마 보병들이 착용했던 흉갑 등 과거 전투원들의 신체를 보호했던 방법과 그 목적은 동일하다. 과거에는 칼과 창, 화살 등의 위협요소가 한정적으로 존재하였지만, 현대에는 소화기탄, 세열탄, 초고속 관통자, 성형 작약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가 개발되어 전장에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서 과거 개인 위주의 방호에서 오늘날에는 개인 방호는 물론, 차량, 전차, 헬기 등 장비에도 장갑을 적용하여 인원과 장비의 생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소령 윤길영
공학처 기계공학과장



방탄공학에서 장갑을 설계할 때는 먼저, 위협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현대 무기에서 사용되는 관통자는 운동 및 화학 에너지탄이 있다. 운동 에너지탄은 장약의 화학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적을 공격하는 탄으로 대부분의 소화기탄과 전차에서 사용하는 날개안정 분리 철갑탄(APFSDS) 등이 있다. 화학 에너지탄은 먼로 효과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메탈제트에 의해 장갑을 관통하는 것으로, 대전차 고폭탄(HEAT) 및 이중탄두 성형작약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동에너지탄의 경우, 관통자가 방탄 재료에 충돌할 때에는 관통자에 의해 표면에서부터 발생하는 소성변형과 응력파에 의한 후면파쇄(spalling) 등 크게 2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후면파쇄는 관통자가 충돌 시 발생하는 인장 및 압축응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한 대표적 무기인 후면파쇄로 전차 승무원을 살상하는 점착유탄(HESH)이 있다. 즉, 이 현상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원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방탄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도, 경도, 인성(韌性) 등의 물성을 지녀야 한다.

방탄 제품에는 모든 공업용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구되는 물성을 특별히 부여하여 제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속, 섬유, 세라믹 등이 많이 사용되며 금속은 강도와 경도가 높고 가공이 쉬우며, 취성이 낮아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섬유 소재는 가벼우면서도 잘 휘어지고 방탄 성능이 높아 개인용 장갑에 주로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케블라와 다이아마 등이 있다. 세라믹은 내열성과 경도가 높은 소재이며, 관통자와 충돌할 때 표면에서 관통자를 분쇄하거나 메탈제트도 일부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세라믹 중에서 탄화붕소(B4C)는 금강석과 유사한 경도를 나타내며, 군용차량과 헬기의 장갑

에 사용되고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재를 방탄공학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단농화유체,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소재들도 연구가 되고 있다. 방탄제품에는 한 가지 재료만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각 소재의 물성과 위협의 수준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케블라 방탄복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세라믹 소재의 방탄 플레이트, 전차의 층상 복합장갑 등이 그 예이다.

로마의 중장보병이 착용했던 흉갑이 로마가 고대 서양세계의 지배자로 올라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현대전에서도 방탄공학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2차 대전을 다룬 영화 '퓨리'(2014)를 보면 타이거 전차 1대의 공격에 셔먼 전차 3대가 격파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실제로 독일군의 타이거 전차는 반고체 상태의 금속을 거대한 롤러로 눌러서 늘이면 강도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드는 균질압연장갑(均質壓延裝甲)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셔먼 전차의 75mm 주포는 이를 관통할 수가 없었다. 이에 비해 셔먼 전차의 장갑은 주조 장갑으로 거푸집에 용융된 강철을 붓고 굳히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주조 장갑은 대량생산에는 용이했지만, 강철을 용융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포에 의해 내구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전차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전투수행기능 측면에서 '방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더해 전투원의 사기 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방탄공학은 전투의 승패, 나아가 작전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유념하여, 화기(火器)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장갑에 대해서도 부단한 연구를 통해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저명인사칼럼 I

한국인의 비밀병기

코리아(Korea)가 전 세계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BTS, 블랙핑크의 지구촌 선풍적 인기로 빌보드차트는 이미 K-Pop 앞마당이 되어버렸고, 2021년 가을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최다 시청,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기염을 토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가나' 보다 못살던 우리나라는 보란 듯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무이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인에너지 저자'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7번째로 가입했다. 도대체 이 나라 뭐지? 과연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핏속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관통하고 있는 신명, 신기(神氣)이다. '신명', '신기'야말로 한국인의 '간판 유전자'이자 '비밀병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한번 불이 붙으면 거침이 없고, 폭발적이며, 끝장을 봐야 하고, 극과 극의 주체할 수 없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흥, 풍류, 흥과 끼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BTS가 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만 보더라도 집단적 광기(?)에 가까운, 주체할 수 없는 망야경(忘我境, Ecstasy) 수준의 응원 열기였지 않은가? 우리는 그래야 속이 풀린다.

한국인의 이러한 야성적 기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 에너지인 신명과 신기는 용광로 같아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신묘한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것을 태어날 때 몸속에 장착하고 세상에 나온다.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은 민족이니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5천 년 찬란한 역사를 지닌 '문명 에너지'이다. 문명 에너지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정신 문화유산이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세계, 최초, 최고 문화유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세계의 최초의 배를 비롯하여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 최

대보유국이기도 하다. 150년 제왕의 일기(일성록)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있는가?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과 목판 인쇄물을 보유한 인쇄 문명 2관왕이다.

고조선의 다뉴세문경, 고구려의 개마무사(철갑기병의 일종)는 불가사의 그 자체이다. 신라의 화랑정신, 백제의 장인정신, 고구려의 기마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의 품성에 대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대지'의 작가 펠릭스는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했다.

흔히들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인이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저력'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5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현들의 끼와 문화유산과 후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감격스러운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일제식민지의 설움, 6.25 전쟁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순국열사의 희생으로 주권을 되찾고, 영토를 지켜낸 '보석' 같은 나라이다.

육군3사관학교 수많은 동문의 용맹스러운 투철한 리더십이 지금 순간에도 방방곡곡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다. 태어났는데 나라가 없거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 상황과는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축복이다. 이제 우리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한국인으로서의 가슴 벅찬 자부심을 지니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3사관학교 57기 생도 한분 한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명인사칼럼 II

내 삶의 추진력을 달아준 육군3사관학교

안녕하십니까? 육군3사관학교 20기로 입관해 의무복무(5년)를 마치고 대위로 전역한 (주)신원기술단의 박경중 대표입니다. 저는 1988년 전역 후 다시 학업의 길로 들어섰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학년이던 편입 후 2년간의 노력 끝에 졸업 직전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일 같이 보이지만, 입관 후 공병 장교로 지낸 5년간의 군 경험은 직장 안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있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제 경험들을 돌아보며 선, 후배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박경중
(주)신원기술단대표, 3사20기

내가 선택한 길에 자부심을 갖고, 당장 내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먼저, 먼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지금 당장 삼은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있기보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목표만을 보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편입학을 통하여 제가 목표로 삼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전공을 살려 공기업(LH)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한양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전기공학 분야의 가장 어려운 자격증인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나가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였고, 입사 5년 차인 1995년도 34세 나이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최연소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로 있는 지금도 여전히 제 분야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을 이어가 현재는 숭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기술사 취득 이후,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안정적인 공기업을 퇴사하고 1997년 4월, 4명의 직원으로 현재의 신원기술단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립 6개월여 만에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제 목표들이 모두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아도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3사에서 쌓아온 인내심과 판단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훈련들을 바탕으로 무너지지 않고 회사를 지탱해올 수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어려운 시간 끝에 사업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100여 명의 임직원에 이르는 (주)신원기술단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3사에서의 고된 훈련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위기라는 믿음을 스스로 갖고 많은 용기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의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시심을 믿기에 아침에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얻은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공부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 저는 국내의 우수 대학이나 타 출신 장교들, 혹은 다른 회사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제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은혜를 혼자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 우리 3사 후배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3사인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내와 용기를 내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선, 후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전하는 삶 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2022 트렌드 노트

당신은 무엇에 진심인가요?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는 물론, 5평짜리 원룸 자취생까지 잘 먹고 살기를 넘어 잘 꾸미기까지 중요한 생활이 되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참고하는 매체는 전형적인 북유럽 스타일에 기반한 매거진 '킨포크'가 아니라 '노랑덕후'의 14평 오피스텔 키덜트 하우스를 소개하는 온라인 집들이 커뮤니티 '오늘의 집'이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통해 생활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2020년대를 '신념의 시대'라 보았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지난 3년간 6배 이상 언급량이 증가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진심이다'이다.

한 번쯤 '노란색에 진심이다', '해리포터에 진심이다', '떡볶이에 진심이다'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앞서 살펴본 노랑 덕후의 키덜트 하우스처럼 생활 전반에 진심을 녹여놓는다. 취미활동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브랜드와 제품을 향하기도 한다. 향하는 곳은 다르지만, 이 진심은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것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도 아닌 열정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그것이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 취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심 가득! 노랑 덕후의 색감있는 키덜트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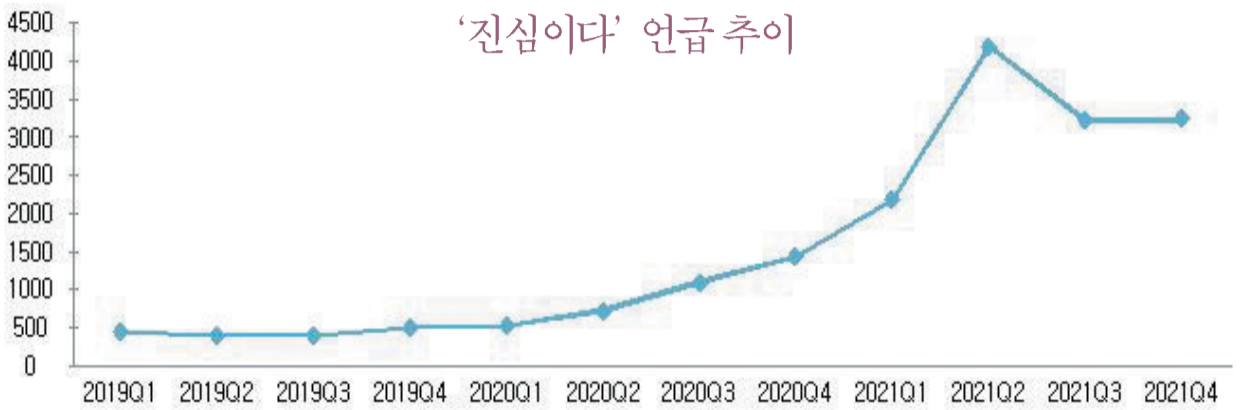
건물 오피스텔
평수 14평

오늘의 집

출처: 오늘의 집 공식 인스타그램 @todayhouse

'나는 무엇에 진심이다'라고 진심을 선언하는 데에는 다름을 드러내는 태도가 담겨 있다. 자신의 다름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름에 대한 리스펙, 즉 존중을 전제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중문화에서 힙합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용하게 된 '리스펙'은 각자의 성향, 처한 상황, 결과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유한 '나다움'을 서로 인정해줄 때 쓰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특히 Z세대에게서 많이 관찰된다. '사

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10대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가치 표현어 1위는 '진심'이다. 그렇기에 다름을 외치는 새로운 세대인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진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커뮤니티+트위터, 2019.01.01.~2021.12.31.

사실 스스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세대는 언제나 존재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대라는 뜻의 X세대, Y세대, Z세대, 한 곳 차이 같은 것들을 강조하며 더 나은 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 역시 사회에 큰 변화로 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Z세대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다름 그 자체'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공유와 재생산의 시대를 살면서 Z세대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이 자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분야에서 차별적이고 독보적인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해서는 안 된다. 옛날부터 해왔고, 그 분야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으며, 실제 삶에도 녹아있는, 그야말로 '진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Z세대들은 '척'하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지 않고, 스스로도 '척'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SM이 세계관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는데 나도 이제 진심됨. 이번 생은 광야에 끌려갔다고 봐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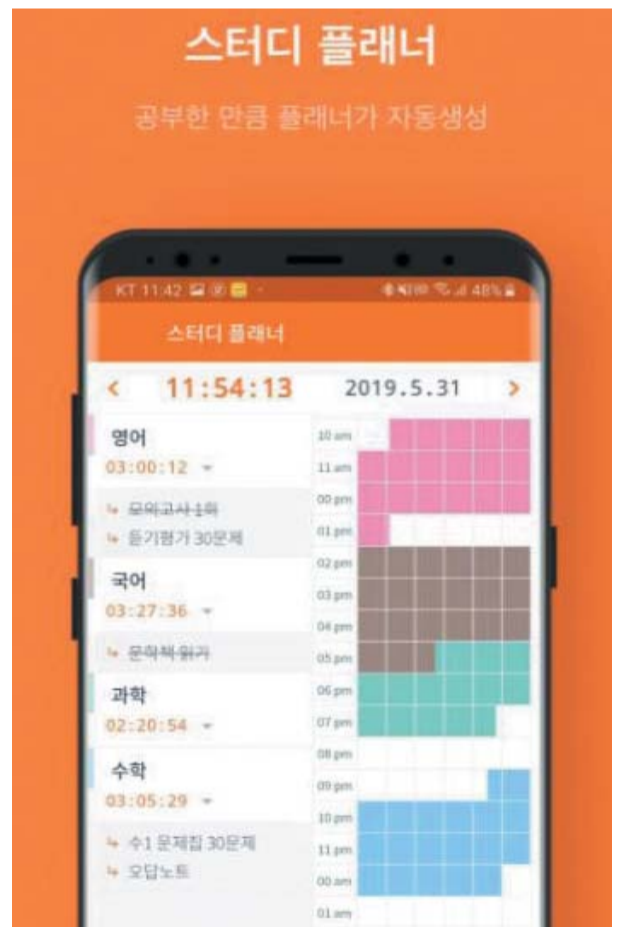
출처: SMTOWN LIVE 2022 포스터, SMTOWN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척'하지 않는 Z세대들이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한때 우리 사회에는 '여유'가 가장 쿨한 태도로 여겨졌던 적이 있다. 아자수가 보이는 해변,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는 모습 등 '여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되었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내가 원할 때마다 휴가를 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하루를 쉬면 하루만큼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경쟁 사회 속 자괴감이 그것이다. 이제 Z세대는 인스타그램 속의 여

유를 믿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내가 진심인 것을 얻기 위해 많은 Z세대가 '갓생'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갓생'은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의미하는 생이 합쳐진 말로, 스스로를 위

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학생인 Z세대들은 10분 단위로 쪼개진 플래너에 오늘 할 일을 적고, '열정 품은 타이머'의 끊임없는 '열품타' 어플을 이용해 순 공부 시간을 기록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부 기록을 자신의 SNS 공부 계정에 매일 기록하기도 한다. 나아가 #스터디윗미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몇 시간 동안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공유하며 랜선 스터디 모임을 한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진심이 담겨 있기에 그 결과로 얻은 성과는 그만큼 리스펙 해주는 Z세대의 태도가 '갓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출처: 열정 품은 타이머(구글플레이 앱스토어)

Z세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열정을 쏟고 진심을 다한다. 제품과 브랜드가 가지고 실천하는 신념이 자신의 진심과 결이 맞아야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이쯤 되면 Z세대의 소비는 '물질로 된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신념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남들과 달라야 하고, 둘째, 그러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고, 셋째, 그 다름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선언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산업의 미래, 메타버스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과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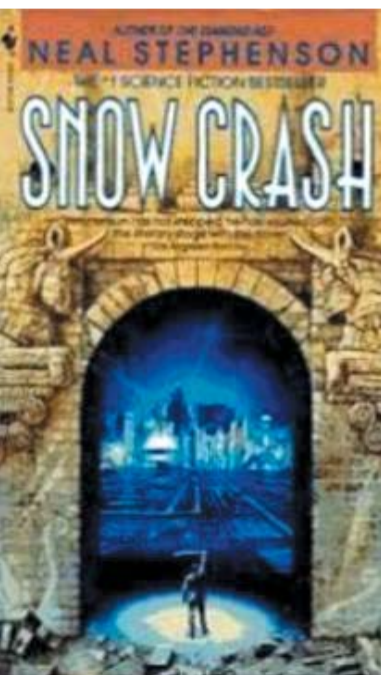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최빈국에서 현재 국내총생산이 1조 6,382억(2020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또 다른 강대국인 독일의 경제적 발전을 일컫는 '라인강의 기적' 과도 비견되어 '한강의 기적' 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50년대 식료품 바탕의 산업을 시작으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되면서 본격적인 공업산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업화를 바탕으로 직물, 의류의 수출산업이 발달하였고 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철강, 석유 화학 등의 기초소재산업과 조선, 전자, 자동차 등 현재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게 해준 기술 집약적 성격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IT, 모바일, 반도체,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 조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세계적 수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비교적 약한 것이 한국 경제의 특징인 만큼,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주도가능한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혁명 이후 블록체인, 핀테크, AI 등 실 틈도 없이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시장에서는 먼저 기술에 대한 선진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시장에서 점유율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다음 먹거리 산업으로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한다.



1. Metaverse(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정의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신조어이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 미국의 소설작가 닐 스텝슨이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단어이다.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 세계와 같은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가상현실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녀서, 단순한 VR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은 초고속 통신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통신망을 바탕으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같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음 산업시장을 주도할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 시장 속에서의 Metaverse(메타버스)

현재, 전 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페이스북, 삼성, 나이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들 또한 메타버스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수십 년간 SNS 기업을 고수해온 것을 탈피하고 회사명을 '메

타'로 바꾸며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향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커넥트 2021' 행사에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시작할 때 소셜 네트워킹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개척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SA에 따르면 수치적으로 보면 올해 세계적으로 460억 달러(약 51조 원)에서 2025년 2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활용 방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메타버스는 회의, 세미나, 교육, 박람회, 전시회, 의료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경제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나이키의 경우는 비디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하여 '나이키 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 랜드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나이키의 가상 제품을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트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테스트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증기기관의 발견, 인터넷의 출현, 스마트폰과 AI 기술 개발을 거쳐 이제 메타버스 기술의 차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가상 현실에서 현실과 연결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세계 각 기업은 메타버스 인재를 뽑고 있고, 한국의 대학교나 국가 기관들도 관련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비대면성과 편리성,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4차 혁명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산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하며, 미래에 한국이 IT 강국, 모바일 강국, 반도체 강국을 넘어 전 세계의 메타버스 기술을 주도하는 메타버스 강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만!천!오백!삼십!이벤! 사관생도! 임! 형!재! 아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18년 전, 필자가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아닐까 싶다. 생도 시절 내내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았기에 저 외침을 입에 달고 살았겠나 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다. 예비생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죄송합니다"였다. 그럴 때마다 "뭐가 죄송해! 다시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며 "죄송합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다, 실수하면 다시 올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지금까지 필자의 삶과 회사의 운영철학과 함께 하고 있다.

2004년 1월, 영천의 바람은 차다. 장교의 꿈을 안고 3사관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은 당당하게 보일 뿐, 사실 매우 수줍었다. 막연하지만 새로운 그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도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했다. 기초군사훈련은 오직 정신적인 테스트 기간이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20여년간 쌓아왔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필자는 기초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어갔다.

생도 시절, 명예로우면서도 애증의 관계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 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혹독한 연습량 때문일 것이다. 오와 열, 좌대각, 우대각, 팔 높이, 보폭, 예모의 각도 다 맞춰가며 일정한 기

충성연병장에 울려 퍼지던 북소리에 발맞추던 나의 숨소리는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전율의 느낌으로 목 뒤에 분명하게 आरो새겨져 있다.

2012년 대위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현재 나는 200여 명의 점주님과 2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외식 F&B회사를 운영 중이다. 브랜드 연 매출은 350억 원이

가는 길에 오만가지 잡념이 떠오를 것이며, 때로는 부정확한 손길(포기)이 그대를 유혹할지 모른다. 또한, 도전(강하)은 항상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심자문)에 안착하려면 뒤(시누크)를 보면 안 된다. 오직 목표에 안착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플랜B(기능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인내와 도전을 정복하게 된다면 성공이란 결과를 낳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빛나는 시간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동문(同門)의 소리

임형재(주엠브로컴퍼니 대표이사, 3사41기)



세로 나아가는 것은 보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하지만 어쩌면 단 한 번, 부모님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멋진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명예, 애증, 자존심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결국 절도 있는 행진을 가능하게 하리라.

"분열! 중대~분열 앞으로~갓! 하나들, 하나들, 중대 우로~~봐! 충성!"

분열의 행진이 시작되는 순간 목 뒤에서 흐르는 전율과 사열대를 향해 충성 구호를 외칠 때 심장으로 쏟아지는 희열은 충성연병장을 퇴장할 때 오롯이 마음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보상이란 영광과 자존감 중간의 미묘한 감정이다. 16년 전 입관식이 내 인생 마지막 분열이었지만

며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책을 출간했고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다. 올해에는 대만에서도 재출간될 예정이다. 자랑하고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유수의 기업가나 훌륭한 분과 비교하자면 특별한 게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힘은 생도 시절부터 겪어온 군 생활의 경험이었다.

전역 후 아무 기술이나 인맥도 없던 시절, 필자를 이끈 것은 '인내'와 '도전'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로워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생도 시절 '유격 입소 행군'과 '공수훈련 강하'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가짐을 다잡았다. 인내(행군)란 항상 괴로움을 동반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목적지(화산유격장)는 훨씬 뒤에 있을 것이며, 책임(군장)은 보다 빨리 무거워질 것이다.

전역한 선배지만 후배 생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 기수 모두가 똑같이 진급할 수 없으며, 모두가 장군이 될 수 없다. 누군가는 원치 않게 전역을 해야 하고 실망감에 휩싸일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일이다. 불가능을 연두에 두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리더육군 장교로서 맡은바 본분을 다하며, 최대한 많이 배우고 또 활용하자. 부대 지휘절차, 소대장 리더십, 인사고과, 지휘체계, 처세 하나하나가 어디서든 성공을 위한 좋은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보다 잘 준비된 인재가 사회 곳곳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인내'와 '도전'을 바탕으로 군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체계를 몸에 익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 있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을 견지한다면, 사관생도로서의 시간과 앞으로의 군 생활은 훗날 어떤 방식이든 푸른 사파이어처럼 빛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성대신문은 학교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제언을 기다립니다.

충성대신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는 점이나 제언 등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출방법

- ☞ 메일 - 인터넷 : 3academy3600@mnd.go.kr
- 군 인터넷 : poi5874@army.mil,
- ☞ 우편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495 사서함 135-1호 공보정훈실 (우 : 38900)

#문의처

일반전화) 054 - 330 - 3605 / 군전화) 952 - 3605

총동문회 임원진 국립현충원 참배

지난 1월 4일, 총동문회장(14기 한동주)을 비롯한 역대 회장, 임원진 등 15명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립현충원(서울 동작동)을 방문,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3사총동문회



▲ 국립현충원 참배 후 단체 사진

박경종 동문(20기, (주)신원기술단 대표) 기부금 전달

지난 1월, (주)신원기술단 박경종 대표는 모교 동문과 후배들을 위해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박경종 대표는 "전달한 기부금이 동문들을 위해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동문과 후배, 학교를 위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3사총동문회



▲ 박경종 대표이사(왼쪽)와 한동주 총동문회장(오른쪽)

송은혜 대위(52기), 총동문회 기부금 전달

지난 1월 27일, 송은혜 대위가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1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과거 총동문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은 행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동문들과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한 것이다. 한편, 송은혜 대위는 2022년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위탁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다. 3사총동문회



▲ 서정열 사무총장(왼쪽)과 송은혜 대위(오른쪽)

대구동문회 격려 방문 행사

지난 2월 9일, 총동문회 사무총장(20기 서정열), 사무국장(24기 유진권)은 지역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대구동문회(회장 21기 김문중, 부회장 23기 윤철환, 사무총장 24기 장세호)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격려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기 복무 및 진급 문제와 더불어 학교 발전을 위한 토의를 함께 진행한 후 마무리되었다. 3사총동문회



▲ 대구동문회 격려방문 행사기념사진

36사단 방문 격려 및 위문금 전달

지난 1월 6일, 총동문회 임원진들이 제36보병사단을 격려차 방문하여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3사총동문회



▲ 한동주 총동문회장(첫째 줄 가운데)과 제36보병사단장 이용환 소장(첫째 줄 우측에서 3번째)

1사단 12여단 방문 격려 및 위문금 전달

지난 1월 14일, 총동문회 임원진들이 제1보병사단 12여단을 격려차 방문하여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3사총동문회



▲ 한동주 총동문회장(왼쪽)과 12여단장 안성찬(오른쪽)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1. 12. 25 ~ '22. 2. 28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4억 9천만원 (2022.2.28 기준)

■ 3사관학교 발전에 동참하는 특별기부자

김을권(육사#13 1000(1,000), 이희범(육사#41) 2407, 김의진(육사#43) 530, 천운환(육사#47) 1072, 김호길(육사#48) 259, 두석주(육사#51) 2197, 이우진(육사#54) 269, 조성근(육사#55) 2142, 변용성(육사#58) 2108, 이규현(육사#58) 2102, 이주실(육사#58) 2187, 김대영(육사#59) 2175, 김진찬(육사#61) 2172, 홍희중(육사#61) 2104, 오민경(육사#63) 147, 홍인재(육사#63) 2137, 문준희(육사#67) 2148, 이찬우(육사#68) 2147, 조지웅(육사#68) 219, 권성진(육사#69) 2135, 한덕수(육사#26) 2114, 남기웅(육사#29) 219, 구희근(육사#32) 2112, 서필석(육사#34) 219, 임문택(육사#34) 213, 송경태(육사#37) 2131, 정우람(육사#46) 225, 이세훈(육사#48) 2130, 홍현신(육사#48) 2128, 나상철(육사#49) 2122, 이선호(육사#51) 216, 김충기(육사#28) 500500, 최재호(육사#29) 2131, 이준수(육사#35) 2115, 윤경주(육사#46) 2121, 임도현(육사#54) 2111, 구주현(육사#55) 2133, 임채환(육사#55) 358, 박수영(육사#56) 2125, 성현애(육사#56) 2153, 강진선(육사#57) 2119, 심정현(육사#58) 2141, 김형태(간부#22) 2162, 강찬영(군중#61) 2137, 최윤정(간사#38) 2146, 송소연(간사#38) 2127, 이대희(준위) 2136, 김소현(여군#46) 2127, 황수현 219, 류재운(군무원) 2199, 안영주(군무원) 2149, 양성우(군무원) 171, 이수진(군무원) 217, 정혜란(군무원) 2128, 3사교교육지원대대어학병입점 100(100)

■ 졸업·재학생도 부모('21.12.25 ~ '22.2.28기부현황)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해(#45 황정태모) 10(830), 홍근식(#46 홍대희부) 6(120), 백인숙(#47 모) 2(14), 성동모(#50 성열환부) 6(216), 안순봉(#51 박상응모) 20(1,030), 김현미(#52 오치원모) 2(55), 이영미(#52 황성규모) 6(313), 정정화(#52 조강현모) 3(347), 박일심(#53 정필승모) 4(136), 이영빈(#53 오경철모) 1(51), 조정숙(#53 유영빈모) 6(136), 한성희(#53 한영빈부) 3(25), 서완수(#55 서지찬부) 4(92), 이찬범(#55 이윤성부) 10(75), 정원섭(#55 정준영부) 2(123), 한순옥(#55 이현중모) 20(2,600), 송학민(#56 송용준부) 2(69), 정희숙(#56 배웅휘모) 20(1,230), 강혜영(#57 고원석모) 2(18), 김경남(#57 김민우모) 2(17), 김경아(#57 김동조모) 20(20), 김근택(#57 김광진부) 4(38), 김민규(#57 김태왕부) 100(100), 김순말(#57 김준모모) 4(34), 박경석(#57 박찬환부) 6(48), 박동현(#57 박정훈부) 3(18), 심영선(#57 원은서모) 3(57), 양내석(#57 양철민부) 30(190), 오유미(#57 김주현모) 4(42), 이동희(#57 박찬환모) 3(51), 임승찬(#57 임승범부) 20(250), 정재현(#57 정유승부) 6(38), 지미리아(#57 김대현모) 20(20), 한성희(#57 한지수부) 3(57)

▶ **재학생(4학년/58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김한영, 김도희, 배범순, 구형보, 양보선, 진경화, 장경목, 최결순, 한민준, 황보순호

▶ **재학생(3학년/59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곽춘복, 권동각, 김선옥, 김희준, 박순정, 박애란, 박연숙, 박주연, 손병천, 신우철, 안산태, 이내규, 이은영, 이주은, 임광철, 장세문, 장연복, 장해심, 정영남, 함갑식, 홍성태, 황영화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 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21.12.25 ~ '22.2.28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6(164), 남훈조 23(1,389), 민석식 12(125), 임관택 2(86), 조윤12(121), 최익환1(87)
- ▶ 3기 김연석 10(588) ▶ 4기 임성기 10(124)
- ▶ 9기 권영호 15(425), 김현기 9(1,202), 윤지환 6(165), 최병학 15(1,265)
- ▶ 13기 문성묵 20(300)
- ▶ 14기 김길영 2(103), 김종환 2(63), 안호 50(1,990), 이순진 20(860), 이용진 20(320)
- ▶ 15기 김성인 2(531), 조서환 10(130)
- ▶ 16기 심재민 2(15), 원홍규 6(330), 유영집 6(35), 윤영식 10(280), 이영호 3(133), 이종우 3(166), 황병태 2(314)
- ▶ 18기 구연덕 3(136), 김용백 6(588), 이기환 2(31)
- ▶ 19기 김익수 4(195), 이경희 3(179), 이종형 6(271), 이창호 6(594), 홍성식 2(201)
- ▶ 20기 김운희 3(73), 박관순 6(160), 서정열 6(495)
- ▶ 21기 신철수 4(1,130)
- ▶ 22기 권순태 2(58), 김면수 15(100), 이진성 1(266), 조태환 4(152), 정경호 2(51), 천병규 10(450)
- ▶ 23기 김태일 2(236), 신영찬 2(78), 오승욱 6(276), 최승환 3(13), 허강수 4(291)
- ▶ 24기 곽중만 4(64), 권금락 4(296), 권오봉 3(220), 김도협 2(238), 김성래 6(42), 남용구 7(299), 모경원 2(233), 박세철 2(77), 방성태 2(117), 안준준 3(101), 정정현 2(197)
- ▶ 25기 김남웅 2(140), 문봉성 2(158), 장광성 6(496), 장무수 2(55), 전희준 2(311), 조재희 2(129), 홍은표 2(206)
- ▶ 26기 고창준 10(309), 양성안 2(16), 박창원 3(8), 서채원 4(51), 유근환 2(40), 이덕우 3(133), 이완주 4(141), 이태인 4(74), 임우영 2(251),

- 장용빈 2(129), 함운식 1(12)
- ▶ 27기 김덕중 2(74), 김성우 4(42), 김용범 4(30), 김지덕 2(28), 김호복 8(281), 석수열 2(51), 우성재 2(13), 안병욱 1(174), 원희문 10(275), 이희순 3(246), 전태환 100(1,300), 정월규 2(50)
- ▶ 28기 권승영 1(27.5), 권인철 1(115), 김진길 2(86), 김창현 2(170), 박용섭 4(185), 서청수 2(178), 유정일 2(48), 윤석찬 2(146)
- ▶ 29기 김강식 2(251), 김광석 4(14), 김태영 4(42), 박성훈 2(159), 박태용 2(138), 이상일 2(194), 이의규 2(121), 임국기 20(70), 임성호 2(170), 최인섭 2(132), 현태식 2(156)
- ▶ 30기 김종권 2(90), 김호성 2(50), 김홍진 5(5), 남진우 2(61), 이병길 2(25), 이진2(15), 임상달 2(123), 주경호 3(120), 홍성범 2(43), 황민호 2(109)
- ▶ 31기 권동호 4(7), 김민식 4(110), 김명태 2(188), 김태희 2(15), 임항수 2(142), 이재춘 2(216), 이훈복 2(54), 최대집 2(59), 진경인 2(39), 김희엽 2(233)
- ▶ 32기 권관덕 6(324), (통)김용태 100(100), 김용태 1(4), 김화용 2(119), 사인우 1(141), 송진수 5(85), 안태환 4(6), 이강경 2(3)
- ▶ 33기 김남식 4(178), 김상선 4(160), 김성근 4(155), 김현규 4(404), 권해욱 4(32), 남석진 2(144), 노일 6(182), 안경일 2(241), 안준영 6(137), 이정표 6(95), 조재봉 2(116), 홍종원 2(37)
- ▶ 34기 강훈 2(3), 김기수 2(186), 김윤성 3(51), 김홍식 6(453), 이무이 2(410), 임창훈 2(87), 정창근 2(112), 정춘환 2(63), 조수창 2(187), 홍영기 2(30)
- ▶ 35기 김경철 2(15), 김병수 2(87), 김수열 2(75), 박병준 6(332), 박승우 2(92), 박시근 2(189), 송명성 4(7), 이문희 2(155), 이호순 6(28), 임창규 2(113), 장춘삼 2(150), 전성광 2(44), 정영석 2(112), 정호준 4(109), 허승수 2(31), 한중훈 4(379)
- ▶ 36기 고미은 2(51), 김도희 4(67), 김동혁 1(95), 김명규 1(58), 김현 2(134), 안경무 6(286), 양현승 2(213), 이광희 2(155), 이규호 2(121), 임종수 2(78), 장세호 2(207), 정우철 2(142), 조동진 2(224), 진연수 2(167)
- ▶ 37기 강성봉 2(173), 김남훈 1(204), 김양호 6(255), 김충기 6(120), 김홍년 2(238), 노진철 2(152), 문장권 2(26), 송성복 4(163), 송용섭 4(297), 옥원호 2(138), 이관모 2(144), 이용구 4(72), 이원형 4(287), 이희성 2(123), 임원철 2(159), 전성진 2(133), 정우진 2(76), 정태욱 6(126), 정희철 2(132), 최정호 2(43), 최하용 6(78), 함성규 2(107)
- ▶ 38기 김대현 2(29), 모을하 2(232), 문은석 2(6), 문정민 2(122), 문현성 2(235), 서성길 2(79), 신상운 2(133), 이정식 2(183), 이정용 4(240), 위재익 4(85), 정한욱 2(213), 함기훈 2(90)
- ▶ 39기 권웅 2(50), 김익진 2(131), 김인경 2(88), 김지훈 4(99), 김동혁 1(65),

- 박철균 2(125), 송진근 2(124), 송창현 4(123), 심용은 2(94), 양운차 2(72), 이대화 2(217), 이응렬 3(115), 이준석 2(81), 장동준 2(73), 정대겸 2(32), 최현철 2(278)
- ▶ 40기 구자은 4(182), 김백린 2(205), 김명우 6(262), 김우형 4(18), 김종욱 2(45), 김형수 2(181), 남태근 2(40), 박상규 2(58), 박진하 2(97), 송석준 2(142), 유형선 2(88), 이호연 10(718), 이훈석 2(64), 최창국 2(100)
- ▶ 41기 권영철 2(71), 김석진 10(268), 박한지 2(191), 방현욱 2(81), 손영민 2(165), 손종득 2(99), 신지훈 1(39), 임성은 4(129), 전종상 10(227), 정기채 2(191), 최민규 2(127), 최인혁 2(75), 최지능 2(214)
- ▶ 42기 강구한 2(29), 강재서 2(109), 강정희 2(158), 공광석 2(64), 김동우 2(132), 김동진 2(44), 김용민 2(68), 박효찬 2(158), 박용준 6(46), 손병현 2(176), 송태권 2(10), 윤희철 2(150), 이광호 2(75), 이기욱 2(99), 이승은 2(159), 이용학 3(161), 이정열 1(85), 정만기 2(151)
- ▶ 43기 강민식 4(250), 김용태 2(97), 김민중 2(241), 노창래 2(49), 박희영 2(65), 배동직 6(154), 백두산 4(246), 임태섭 2(50), 이남익 1(78), 이도훈 2(133), 이상민 2(147), 이용희 4(231), 이준맹 2(86), 이호선 2(88), 최진호 4(95)
- ▶ 44기 김대는 2(109), 김승돈 4(6), 김민찬 2(50), 권용혁 4(40), 서동준 2(144), 임태천 2(97), 윤병희 2(178), 이민재 2(136), 이영민 2(144), 이희성 4(156), 최재균 2(76), 황재혁 2(35)
- ▶ 45기 권기호 2(139), 김동호 2(147), 김성수 2(117), 박영일 2(141), 박지훈 2(104), 신우철 2(132), 이인근 2(87), 이진희 4(139), 서석관 4(148), 정재현 2(143), 정진우 2(144), 채희용 2(122), 최충수 2(145), 황승세 2(143)
- ▶ 46기 김강연 2(2), 강승용 3(262), 김대영 2(46), 김명철 2(130), 김경렬 2(130), 김경호 2(128), 김진용 2(45), 김현식 2(12), 김희준 2(46), 박수만 2(35), 백인정 2(131), 송원상 4(212), 오기리 2(129), 이진철 2(2), 이상운 2(131), 이수원 2(134), 정종택 6(392), 조광연 2(69), 조수빈 2(93), 차승우 2(93), 표상열 2(131), 한영인 2(131), 홍한표 2(122), 황순창 2(131)
- ▶ 47~56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연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 57기 김도은 10(120) ▶ 58기 황영호 6(36)



김대령의 송고한 애교소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두 남매에게도 부친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생전 부친소망을 받들고자 모교를 찾은 김충기(육사#28)대령

2022년 1월, 김충기대령(육사28기)은 작고하신 부친 김을권 예비역소장(육사137기)께서 3사관학교 3대 생도연대장(13,14기 훈육)과 8대 교수부장을 역임하셨는데 생전에 3사관학교 발전기금 기부를 희망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으나 건강악화로 작년에 작고하시어 부친의 유지를 받들고자 약 20년만에 자신도 교육받고 임관했던 모교 충성대를 방문하였다. 이날 학교장(고창준 소장) 및 학교간부들이 정중히 김대령 일행을 맞았으며 김을권장군 1,000만원, 김충기 대령이 5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여 고인과 김대령의 송고한 애교소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두 남매에게도 부친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3사교 영어 어학병으로 복무 중인 교육지원대대 임종범상병의 특별한 학교사랑

2022년 이른봄 2월, 교육지원대대 소속 임종범 상병(영어과 어학병)은 안보논문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알려졌다. 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이 근무하는 3사관학교와 생도교육발전에 쓰여지면 더 보람있을거란 생각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자의 역할과 마음가짐의 모범을 보여준 임상병의 특별한 학교사랑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57기 졸업생, 모교발전을 위해 6억 3천만원을 기여하다!

지난 2월 28일 성대한 임관 및 졸업식을 가진 57기 동기회는 졸업식에 앞서 58·59기 입·진학식 행사간 2년간 정들었던 충성대를 떠나며 사랑하는 모교와 후배들의 부단한 성장을 염원하며 57동기회와 각 개인이 약정한 약 6억 3천만원의 기부약정을 후배생도 및 학교 간부들이 앞에서 임관동기회장 김도은 생도가 학교장(고창준 소장)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57기들의 모교사랑, 후배사랑을 보며 참석자 모두는 뜨거운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 육군 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계좌번호 : 900969-01-003463
- 대우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탁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